

다원팀, 우수상 수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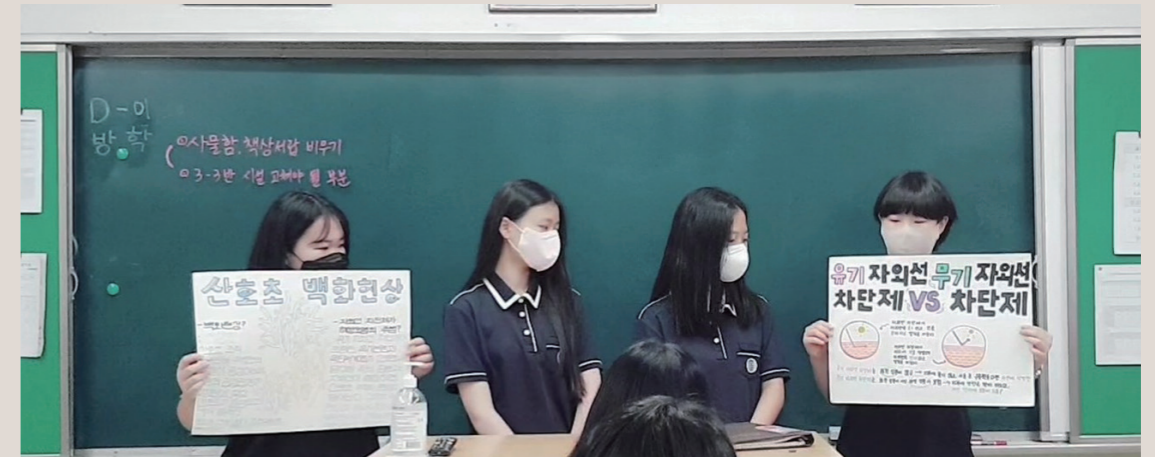


[리포트]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백화 현상에 영향을 줄까?

[영 상]

산호초의 백화 현상



다원

박지은, 서지현, 김은서, 강예나
(장안여자중학교 3학년)

각오 한마디!

안녕하세요. 체커톤에 참여하게 된 '다원' 팀입니다. 평소 팀원들 대부분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언론을 비롯한 소수의 이익
집단,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비상식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등 일명 가짜 뉴스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자정
작용이 사회를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10대 청소년들 역시 가짜 뉴스(검증
되지 않은)를 판별할 수 있는 감식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체커톤
이라는 대회를 접하게 되었고, 이 대회를 통하면 10대 학생들에게도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본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대들에게도 가짜 뉴스에 대하여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가진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백화 현상에 영향을 줄까?



최우리 기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도 바다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 선정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라면 이를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사람들이 해양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안을 실천하여 해양 오염이 늦춰지길 바라는 마음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나요?

1. 자외선 차단제에 어떤 물질이 첨가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자.



최우리 기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지요! 좋은 접근입니다.

2. 어떤 물질이 산호초 백화 현상에 영향을 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최우리 기자

산호초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기본이 됩니다.

3. 산호초 백화 현상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4.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해양법에 대해 알아보자.

5. 산호초 보호 인증을 받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알아보자.

6. 산호초 보호 인증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우리 기자

이런 것이 있다면 산호초에 친환경적인 자외선 차단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7. 논문과 신문 기사를 찾아보며 자료를 수집한 후 팩트체크에 대한 사이트를 통해 진위를 가려보자.



최우리 기자

전문기사는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나온 연구자료, 논문, 전문가, 당사자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팩트체크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사람은?

클라우드 소싱(생산과 서비스 과정에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참여하게 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방식) 방식의 플랫폼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허위 정보 검증 제안, 검증 주제 등록, 검증 자료 등록,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소싱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과 언론사들이 공적인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인 'SNU'이라는 팩트체크 사이트에 있는 팩트체크 기사문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SNU' 팩트체크 사이트는 언론사와

대학이 협업하는 비영리적, 비정치적 공공 정보 서비스 모델로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는 웹 플랫폼을 마련하고, SNU FactCheck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이 플랫폼에 사실이 검증된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차단제 금지 법안을 발효한 하와이, 팔라우, 태국의 법안도 참고할 예정입니다.



최우리 기자

한번 팩트체크를 한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팩트체크를 직접 해 보자는 취지에서 가급적 원자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체크해보기



Q 누구에게 물어보았나요?

학교 과학 선생님을 인터뷰하였다.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과학 선생님께 다섯 가지의 질문을 드렸다.

첫 번째는 백화 현상에 대한 질문이었다. 과학 선생님께서는 “백화 현상이란, 바다에 사는 산호초가 하얗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그렇다면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라고 추가 질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대표적이다. 지구 온난화는 탄소 계열에 있는 화석 연료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온실효과 나타나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최우리 기자

산호초의 백화 현상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수온 상승을 연결하였습니다. 수온 상승을 할 경우 산호초가 하얗게 되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산호초는 식물이 아닌 동물로 공생하는 조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호초 지대가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였다. 과학 선생님께서는 “산호초 자체가 균을 이루고 있어서, 바닷속 생물이 살 수 있는 요소인

먹이와, 은신할 공간을 제공해주어 바다의 생물 25% 이상이 산호초 안에서 서식한다. 이에 산호초는 보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질문은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해양 생태계 뿐 아니라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도 있을까요?’였다. 과학 선생님께서는, “앞서 말했듯 산호초는, 바다에 살아있는 생물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데, 이러한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1차적으로, 산호초 지대에 사는 생물체가 죽을 것이고, 2차적으로 인간들의 식량이 부족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바다에 산호초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였다. 이에 과학 선생님께서는 “1차원적으로, 산호초도 생물이니 생존이 가장 큰 목적이며, 산호초가 군집을 이루면서, 군집 상태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보호색을 받거나, 먹이를 먹거나, 공생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산호초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돼서, 산호초는 꼭 필요한 생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산호초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였다. 과학 선생님께서는 “생태계는 생물과 미생물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며, 바다라는 생태계 역시 그렇다. 생물이라는 물고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부터 시작하여 공존하고 있는 조류까지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작은 범주의 환경보호를 실천하여, 큰 범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지켜야 한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Q 인터넷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나요?

1. 중앙일보 유지연 기자의 기사문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는 대표적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라 밝히며,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원리에 따라 두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를 기사로 작성했다. 뒤의 내용이 그 기사의 내용이다. ‘유기 자외선 차단제, 무기 자외선 차단제이며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해 피부에 무해한 열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피부를 보호한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말 그대로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 자외선을 튕겨내고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한다.’

www.joongang.co.kr/article/23478817

2. 조선일보 이영완 과학 전문기자의 기사문

“선크림에 쓰는 자외선 차단 물질 옥시벤존이 산호나 말미잘 같은 해양 생물 내부에서 당분과 결합하면서 독소로 변한다”라고 한 교수진의 말을 인용하여, 자외선 차단제 속의 옥시벤존이 산호초, 말미잘 속의 당분과 결합하면 백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기사문으로 작성했다.

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05/11

EP3CMTRTMRCEPPU43E7JDQKQDI/

3.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의 기사문

태국에서 화학물질인 옥시벤존이 첨가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과 판매를 금지했다는 내용을 기사문으로 작성했다.

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9

Q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가 있었나요?

‘산호초가 모두 사라진다면?’이라는 책이다.

“산호초는 바닷속 생명체의 4분의 1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곳이에요. 산호가 사라진다면 그 어린 생명들도 지낼 곳이 없을 거고요, 바닷속 생명체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바다숲이라고 불리는 해조류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멀리서 보는 바다는 변함 없는 모습인데, 바닷속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열대 바다에서 보이던 해양 생물들이 제주 바다에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예전 제주 바닷속 모습을 기억한다면 낯선 생물들이 마냥 신기하고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백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니까 늦었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해요. 내가 사용한 선크림이 해양 생물에게 유해하다면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목말라 마신 생수병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잘 처리해야 하고요.”라며 책 속에서 산호초 백화 현상의 심각성을 알려주며, 산호초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Q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1. 해양수산부의 공식 블로그 백화 현상의 원인과 그 이유인 옥시벤존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 방식을 밝히며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해양 오염을 막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blog.naver.com/koreamof/222430988602

2. 팩트체크넷의 팩트체크 기사문

factchecker.or.kr/fc_subjects/123

3. 팔라우 법안 요약본

팔라우는 2020년부터 옥시벤존·옥티노세이트·옥토크릴렌·일부 파라벤 등 10가지 화학 물질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였고, 위법행위를 하면 1,000

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금지된 자외선 차단제는 압수당한다.

www.palau.gov.pw/wp-content/uploads/2018/08/Proposed-Legislation-re-Responsible-Tourism-Education-Act-of-2018.pdf

4. 하와이주 입법 요약본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수중 활동을 통해 하와이의 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산호 백화를 증가시키므로 하와이는 옥시벤존 및 옥티노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하와이에서 판매 및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www.capitol.hawaii.gov/session2018/bills/SB2571_CD1_.HTM

5. 수석연구원 크레이그 다운스 박사의 기고글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의 백화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펼치고 그 근거로 옥시벤존의 독성을 알리며, 끝으로서는 결과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igt.or.kr/index.php?document_srl=54781&mid=abroad

6. 자외선차단제와 산호 백화 현상에 관한 논란을 다룬 허프포스트 기사 원문

일부 과학자들은, ‘산호초의 백화 현상에 대해 더 연구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www.huffpost.com/entry/sunscreens-corals-johnson-climate-cancer-noaa_b_5c815b02e4b048eba782b94d

7. 부산 숨비 인터뷰 영상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우리나라 해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0209281294487

결론 작성하기

팩트체크 사이트인 팩트체크넷에 여름철 외출할 때 필수 아이템인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백화 현상에 영향을 주는지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는 검증 제안이 들어왔다. 이에 팀원들을 구성하고 검증 제안을 주제로 팩트체크를 하였다. 백화 현상이란 건강한 산호초 조직 1cm² 안에 수백만 세포의 와편모조류 등 여러 원생생물 및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공생관계가 파괴됨에 따라 산호초가 탈색되고 기저 골격인 흰색 석회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해양 생태계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산호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이로써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원인은 지구 온난화와 자외선 차단제이다.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외선 차단제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최우리 기자

자외선 차단제의 영향으로도 산호초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잘 지적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양 수산부의 공식 블로그에 작성된 '선크림과 산호초 백화 현상 어떤 관계가?'라는 글에 의하면, 산호는 바다 속 조류에게 자기 배설물을 양분으로 주고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당분을 받으며 아름다운 색깔을 만든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닷물이 30도를 넘으면 조류가 폐사하게 되고, 조류의 폐사로 산호도 양분을 받지 못해 죽고 산호의 색이 빠져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원인을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의 백화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일보 유지연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백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옥시벤존과 옥티

녹세이트 성분의 유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해당 성분이 물에 씻겨나가 산호 등 해양 생물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한다.



최우리 기자

기사들을 통해 확인한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을 우리 가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이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한해 약 1만 4,000톤의 자외선 차단제가 하와이 및 카리브해로 흘러 들어가 산호의 DNA를 손상하고 번식에 악영향을 줘 결국 산호를 죽게 하는 '백화 현상(하얗게 굳어 골격만 남은 상태)'을 가속시킨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의학 생태독성 학자인 크레이그 다운스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의 성분이 물고기·바다거북·알·조류·돌고래·굴·가재·홍합 심지어 인간과 돌고래 모유에서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며, 자외선 차단제로 인한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해양 생태계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 하와이, 팔라우는 자외선 차단제 금지법을 내놓기도 했다. 하와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이 발효되었으며, 옥시벤존 및 옥티녹세이트를 함유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였으며, 태국에서는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부틸파라벤, 4-MB 등의 4가지 화학물질이 모두 산호 유충을 파괴하고 번식을 방해하여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4가지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하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 10만밧(3~50만원)이 부과된다. 팔라우에서는 2020년부터 옥시벤존·옥티녹세이트·옥토크릴렌·일부 파라벤 등 10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된 선크림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위법행위를 하면 1,000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자외선 차단제는 압수당한다.

그렇다면 국내의 피해는 없을까? 아니다. 부산숨비 인터뷰 영상에서 '김형숙' 해녀는 "산호는 내가 40대쯤 서서히 없어졌다. 전복이나 해삼 등 물건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바닷속 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 탓인 듯하다. 방파제를 새롭게 설치한 이후에도 영향을 받았다. 태풍 피해를 크게 겪은 후에 설치했기에 어쩔 수 없지만, 바다가 변하는 건 아쉽다. 그래서 요즘 바다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한다. 나쁜 물이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백화 현상은 청사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다.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더라. 바닷속을 떠돌다 큰 전복 한 마리만 봐도 감사하다. 물속에서 '용왕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한다. 그동안 살기 위해 물질을 해왔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물질하고 싶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되진 않은가. 헤엄칠 수 있으면 계속 바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김형숙 해녀의 발언으로 우리나라도 산호초 백화 현상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양학자이자 NOAA의 코랄 리프 워치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인 마크 에킨(Mark Eakin)은 허프포스트 기사문에서 '산호를 구하기 위해 일부 선크림을 금지해야 합니까? 과학자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며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내세우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산호초 백화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외선 차단제가 아닌, 기후 변화라며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놓기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과학자들은 "연구가 제한되어 있어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에 얼마나 손상되는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밝히며, 연구가 제한되어 있어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의 백화 현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산호초가 백화 현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기엔 때가 이르다고 한다.



최우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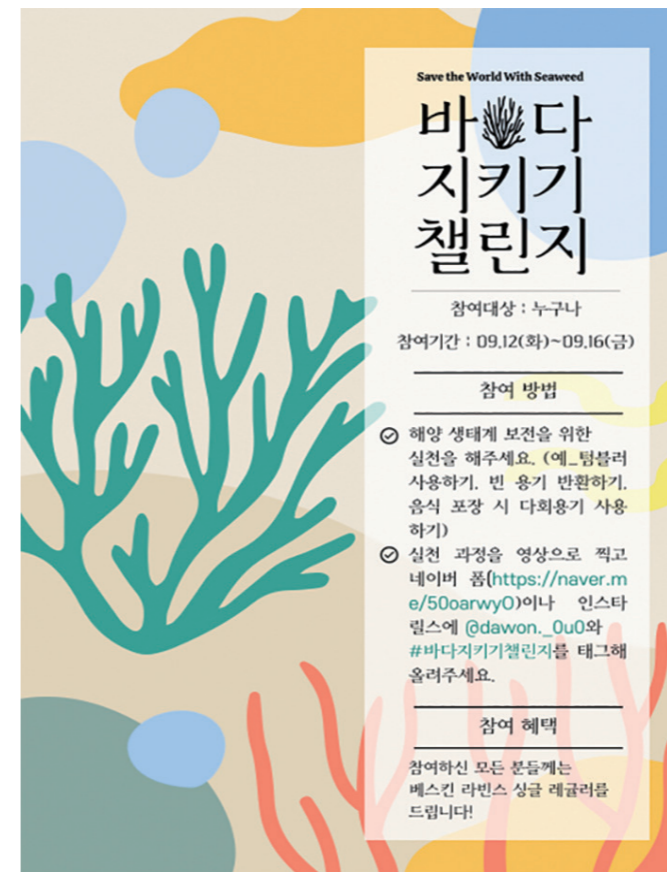
자외선 차단제의 영향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살펴본 점도 좋습니다.

이렇듯 일부 과학자들은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의 독성 성분을 조금 더 연구에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자외선 차단제의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나라 하와이, 태국, 팔라우 등에서 법안을 발효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학자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백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기후 변화(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연구가 제한되어 있기에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백화 현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비치고 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백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부 사실로 볼 여지가 충분하나, 조금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의 백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부분만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 미디어 콘텐츠

바다의 노래



▲ 영상보러가기

● 콘텐츠 소개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 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생소한 주제인 산호초 백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였다.

이에 팀원들과 많은 회의를 거친 결과 단편영화 속 일부분에 학교 학생들의 챌린지 영상이 나오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산호초 백화 현상과 해양 오염에 대하여 알리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직접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다시금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팀원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및 화장품에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환경오염의 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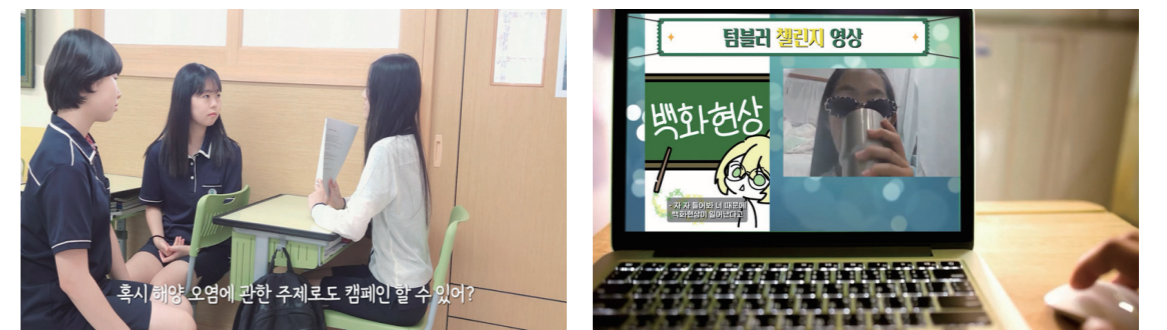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단 걸 알게 되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단편영화에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으니, 환경 보호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단편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산호초 백화 현상 및 해양 오염이라는 주제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가장 많이 진행했다. 직접 연출부터 연기, 촬영, 감독을 담당했기에, ‘이 장면은 대사가 아닌 내레이션을 활용하는 게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장면은 산호초 백화 현상을 전달하는 부분이니,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등등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화하며,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높은 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처럼 우리 다원 팀은 어려운 과정을 마주치면, 회의를 통하여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다. 특히 ‘브레인스토밍’ 방법도 사용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기에, 일반 회의보다 참신한 발상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만약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추상적이었던 장면들을 그대로 촬영했어야 했기에 장면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시금 회의와 아이디어 표출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활동사진



참여소감



김은서 >>>

이번 대회를 통해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유기 자외선 차단제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앞으로는 주의하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호초 백화 현상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산호초가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를 할 때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정말 이 자료가 믿을만한 것인지 따져보는 활동도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함께 직접 단편영화도 만들어보고, 산호초 백화 현상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도 해보고, 바다 지키기 챌린지도 홍보하며 정말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은 >>>

체커톤 제4회에 참여하여, 배운 점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우선 환경과 언론 분야 전문가분들에게 들은 특강은 개인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기회였고, 팩트체크 리포트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ebs pd 님이 해주셨던 미디어 콘텐츠 특강을 통하여 드라마와 영화의 양식 등을 알게 되어, 단편영화의 대본을 수정하였기에 미디어 콘텐츠가 한 걸음 더 완성의 과정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한 후에는 예선보다 진지하고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에 새로운 회의 방법인 '브레인스토밍'을 떠올렸다. 찾아보니 브레인스토밍은,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1차원적인 아이디어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대회에서는, 완성도는 물론이고 다른 팀들과 우리 팀의 차이점이 필요했다. 그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회의

방법인 ‘브레인스토밍’을 시도해 보았다. 물론 브레인스토밍도 처음 진행할 땐 다들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에 바빴다. 하지만 한두 번의 시도를 거치고 나니, 브레인스토밍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었고 1차원적인 아이디어를 다 함께 대화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1차원적 아이디어가 점점 좋은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처음엔 추상적이더라도 다 함께 회의를 통해 수정의 과정을 거친 모두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처음부터 나 혼자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다 함께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더 값지고 보람찬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지현 >>>

해양 오염과 산호초에 대해 조사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환경오염의 심각함과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더 좋은 방안을 찾고 인터뷰, 영화 촬영, 챌린지 홍보 등을 직접 발로 뛰며 해나가면서 많은 것을 체득할 수 있었던 이번 경험이 앞으로 제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강예나 >>>

이번에 대화에 참여하면서 몰랐던 부분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선크림이 산호초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번 기회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의 성분과 선크림의 종류를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문가 피드백



정재철 기자

팩트체크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나 팩트체커들이 팩트체크를 한 내용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그런 점에서 팩트체크넷과 해양수산부 블로그에서 팩트체크한 것을 활용한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과 다원팀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소개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우리 기자

선크림을 바르고 바다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 몸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산호 등 바다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좋은 주제를 선정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안, 국내외 연구기관의 팩트체크 기사를 확인하려 한 점은 탁월합니다. 또 이들 기사를 통해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무엇인지, 선크림의 성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우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단계적으로 확인하려 한 점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사인용보다 앞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검증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선크림의 성분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면 팩트체크 과정에 더욱 힘이 전해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 환경연합은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무려 2만 2천 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에 질문해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을 수도 있었겠지요. 또한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 아니라 비비 크림같은 다양한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